

장성군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사업 본격 시행”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등 준비 완료... 김한중 군수 “두텁고 따스한 복지 제공”

장성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돌봄통합지원사업 시행 준비를 마무리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돌봄통합지원사업은 기관·단체별로 분절돼 시행 중이던 노인,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지난 7월 '2025년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된 이래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

8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당지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서 9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병원 진료료를 받을 수 있



도록 교통편과 동행 도우미를 지원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장기요양·노인 및

장애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장성군 통합지원협의체 심의회를 열어 내년도 장성군 통합돌봄 실행 계획안을 심의하고, 민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가족행복과 내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두텁고 따스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노인맞춤 돌봄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협의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완도군, 전남도 농식품 유통 업무 평가 '우수상'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농산물 안전성 강화 등 높은 점수 받아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5년 도 농식품 유통 업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물 유통과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유통 활성화, 농식품 산업 기반 구축 및 품질 관리, 브랜드 쌀 육성 및 판매,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4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완도군은 특히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부문에서 전라남도 온라인 소포몰인 '남도 장터' 입점 업체 수 및 직거래 장터 참여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강화 부문에서 농산물 우수 관리(GAP) 인증 증가 확대 목표 달성,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교육 농업인 참여율,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전년도 평가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된 항목이 많았다.

이정옥 농업축산과장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팜 확대 추진,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완도만의 특화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강진군,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인정

강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9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79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강진군은 전라남도 내 6개 시·군에 포함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평가는 1~4월 자체 발행 노력(70%)과 9~10월 국비 집행 실적(30%)을 합산해 종합 점수 60점 이상을 획득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 지자체는 3개 그

룹으로 구분해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강진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과 건전한 유통 관리, 국비 연계 집행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확보한 인센티브 2억 원은 12월 중 특별교부세로 교부될 예정이며, 군은 이를 지역상권 활성화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소비촉진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상품권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



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7년 연속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을 연중 10%로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

성화에 앞장서 왔으며, 2026년에도 상품권 발행과 할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영암군, 행안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3년 연속 우수

특교세 확보, 쓰레기종량제봉투값 인하 조례 개정 등 높은 평가

영암군(우승희 군수)이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시상하는 평가에서 2023,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린 것.

영암군은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정 노력으로 구성된 3개 평가 항목에서 정량·정성 지표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올해 1월 200L 쓰레기종량제봉투값을 460원에서 540원으로 인상했으

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월부터 다시 460원으로 인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각종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7개소 신규 지정 및 지원 등으로 외식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 노력도 주목받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 전 부서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요금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안정 시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철 기자

담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사백신 새로 도입

1년 이상 거주 군민 대상,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 보호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포진 발병과 합병증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예방약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대상포진 생백신(1회 접종)은 본인부담금 2만 원을 내면 접종받을 수 있으며, 새로 도입한 사백신(2회 접종)은 회당 13만 5천 원 중 군에서 4만 원을 지원해 차액을 지불하고 접종하면 된다.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으로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다. 단, 2020~2025년 군비 지원으로 이미 생백신을 접종한 군민은 사백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전입 일자 표시)을 준비해 보건기관에 방문하면 되며,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해 의사의 예진을 거친 뒤 접종받으면 된다.

이미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라면 회복 후 6~12개월이 지난 뒤 접종할 수 있으며, 다만 예방약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금기 사항에 해당하면 접종받을 수 없다. 담양/이종욱 기자

보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평가 최고 등급 선정

'가등급' 선정,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보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의 신속성, 사용 촉진 노력,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성군은 65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상위 24%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최고 등급에 선정됐다.

보성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요일제 없이 마을별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군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1·2차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16억 원 규모로, 지급률 99.3%를 기록

했다. 특히, 7월 말 기준 신속지급률이 95.8%에 달해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 성과를 보였고, 이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지급률을 높였으며,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힘썼다.

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으로 군민들의 편의를 제고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